buddhanews.com

간화선을 대중화하려면?

조계종 불학연구소 23일 간화선 세미나

간화선 대중화 사례를 통해 간화선의 비전을 조명하는 자리가 열린다.

조계종 불학연구소(소장 현종)는 10월 23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제11차 간화선 세미나를 개최한다.

'간화선 수행의 성공사례와 간화선 대중화의 비전'을 주제로 열리는 행사에는 수불 스님(안국선원장)이 '안국선원의 간화선 수행과 지도방법'을, 월암 스님(지리산 벽송선원장)이 '벽송선회와 간화선 대중화의 비전'을 발표한다.

불학연구소 서재영 선임연구원은 "간화선이 현대인들에 지나치게 어렵다는 지적이 있지만, 안국선원과 벽송선회에 참가하는 수백 명의 재가불자를 보면 간화선이 현대인에 적합하지 않다는 시각은 잘못됐다"며 "'어떻게 해서 간화선 수행을 대중화 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간화선을 대중화시킬 것인가?'라는 간화선 대중화의 방법론적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02)2011-1818 조동섭 기자

'가산불교대사림' 11권 발간

'ㅂ' 마무리 'ㅅ' 사건달바까지 다뤄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 · 조계종 총무원장)은 최근 <가산불교대사림(伽山佛敎大辭林)> 11권을 발간했다.

책에는 1400 페이지 분량으로 5800여 표제어가 수록돼 7권부터 이어온 'ㅂ' 항목이 마무리 됐다. 표제어 '불교'에서는 7페이지에 걸쳐 '불교'와 인도, 스리랑카, 동남아, 한국 등에서 진행된 '불교개혁'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기술했다.

이어 'ㅅ'항목에서는 불도를 추구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인 '사(士)'로 시작해, 음악과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음악신인 네 명의 건달바를 뜻하는 '사건달바'까지 다뤘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은 1999년부터 불교 관련 표제어 15만여 항목을 정리하는 세계 최다 불교백과사전인 <가산불교대사림> 편찬 작업을 펼치고 있다. (02)765-9602 조동섭 기자

"한강시원지 우통수 불교와 관련"

월정사 성보박물관 학술세미나서 주장

"우통수(于筒水)와 금강연(金剛淵)은 한강의 시원지이며, 불교와는 불가분의 관계다."

평창 월정사 성보박물관(관장 정념 · 월정사 주지)이 10월 13일 월정사 대법륜전에서 '한강시원지 오대산 우통수'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에서 월정사성보박물관 학예실장 자현 스님은 주제발표 '불교에서 바라본 제례의식, 생명수 사상'에서 이같이 주장해 관심을 모았다.

스님은 "우통수와 금강연을 기록한 사료들에서 한강의 시원이라는 사실 외에 우통수의 색과 맛, 무게가 다른 물들과 달랐다는 신성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금강연의) 금강이라는 명칭에 불교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볼 때 한강의 시원과 불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록문학가 이지누씨는 주제발표 '인문지리학적 관점에서 본 우통수와 한강'에서 "우통수(于筒水)와 금강연(金剛淵)은 한강의 시원지이며, 오대산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화공간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씨는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불교문화를 폄하했지만 우통수와 금강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면서 "우통수는 서대 염불암과 같은 장소이고, 금강연은 월정사와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조동섭 기자

백제금동대향로 나투다

불교중앙박물관 '백제가람 속 불교문화' 특별전

절제와 담백한 미를 자랑하는 백제불교 문화재가 한자리에서 전시된다. 특히 전시에는 백제 불교 미술의 백미라 불리는 '부여 능산리 출토 백제금동대향로(국보 제287호)'가 국립박물관 외 기관에서는 처음으로 공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불교중앙박물관(관장 범하)은 10월 16일 '백제가람에 담긴 불교문화' 특별전을 개최한다.

전시회에는 '백제금동대향로'를 비롯해 백제 지역에서 발굴 · 출토된 불교조각(54건) · 불교공예(35건) · 불교건축(67건) 등 관련 유물 200여 점을 엄선해 전시한다.

전시회는 다섯가지 소주제로 나뉘어 △백제불교 연표 등을 통한 '백제 불교의 발자취' △능산리사지 금동광배 등을 통해 백제 불교 미술의 섬세한 조형미를 소개한 '백제의 불상' △부여 장하리석탑 등 충남지역 석탑에서 사리구를 비롯해 함께 출토된 10여 과의 사리를 친견할 수 있는 '백제의 불교공예' △다수의 사원이 불국토를 이뤘던 사비시대 모습을 조감할 수 있는 '백제의 사원' △백제의 우수한 건축기술을 소개하는 '백제의 사원건축' 등으로 선보인다.

각 소주제별 전시 문화재 가운데에는 국립 부여 · 공주 · 청주박물관 소장문화재 중 공주의당 금동보살입상(국보 제247호), 부여규암면출토 금동관세음보살입상(국보 제293호), 계유명전씨아미타불삼존석상(국보 제106호), 부여부소산출토 '정지원'명 삼존불(보물 제196호), 군수리사지 출토금동보살입상(보물 제330호) 등 백제불교미술의 정수라 할 수 있는 국보급 유물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중 '백제금동대향로'는 소장처인 국립부여박물관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도 국립중앙박물관에서만 두 번 전시됐을 정도로 귀한 전시품이다.

1993년 12월, 부여 능산리 절터에서 출토된 백제금동대향로는 높이 61.8㎝의 크기다. 대형 향로는 유례가 없을뿐더러 받침에선 다리 하나를 치켜든 용이 연꽃봉오리를 입으로 받치며 우아한 곡선을 그리는 등 백제 미술 중의 최고로 손꼽힌다. 용과 연꽃 봉오리 위로는 사방에 촘촘히 표현된 74개의 산봉우리, 6그루의 나무, 12곳의 바위, 39마리의 동물, 16명의 인물상이 묘사돼 있고, 신산(神山) 꼭대기에는 봉황 한 마리가 날개를 활짝 펴고 서 있다. 향로의 연기는 봉황의 가슴 등에 뚫린 12개 구멍에서 피어 오르도록 고안됐다.

백제금동대향로의 보험가액만 300억원에 달하기도 하지만, 국립박물관의 자존심으로 불릴 정도의 '명품' 유물로 지금까지 외부에서 전시된 예가 없다. 이런 까닭에 이번 불교중앙박물관 전시는 국립부여박물관의 한 관계자가 "부처님 가피가 아니었다면 안될 일이었다"고 말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었다.

범하 스님은 "'백제금동대향로의 불교중앙박물관 전시가 결정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도 국립박물관 외에서는 두 번 다시 만나기 힘든 기회"라고 설명했다.

전시는 11월 5일까지 계속된다. 단, '백제금동대향로'는 10월 22일까지만 전시된다. (02)2011-1960 조동섭 기자

사진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10월 15일 특별전 개막식에서 지관 스님(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최광식 국립중앙박물관장(오른쪽)이 금동대향로를 둘러보고 있다. 보물 제196호 정지원명금동삼존불상, 국보 제247호 공주의당금동보살입상, 국보 제287호 백제금동대향로.

"10·27법난 교과서 게재돼야"

10·27법난 명예회복 학술심포지엄서 주장

군부정권의 도덕적 결함을 은폐하기 위해 자행됐던 10 · 27법난에 관한 관련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 과거사 청산과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관련 학술행사에서 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법난에 대해 초 · 중 · 고교 및 대학 교재에 게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0 · 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장 원학)는 10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10 · 27법난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10 · 27법난 명예회복을 위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행사에서 '10 · 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개선방안'을 주제발표한 최용춘 상지대 교수(교불련 회장)는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로의 이관 △역사교육관 건립 △법난에 대한 학생 교재 게재 △각 종단별 피해자의 잔여임기에 대한 배려 등을 주장했다.

한편, 법난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한 월주 스님(금산사 회주 · 지구촌공생회 이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잘못된 국가권력에 의한 역사적 범죄행위는 진상이 철저히 밝혀지고 피해에 대한 국가적 배상이 이뤄줘야함은 물론 후세들에게 교육되고 교훈으로 남겨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다케무라 마키오 총장 유식 특강

23일 東大 불교문화연구원 문화관서

세계적인 유식학자 다케무라 마키오 총장(日 동양대)의 특강이 열린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박인성)은 10월 23일 오후 3시 문화관 초허당 세미나실에서 2009 세계석학초청 특강을 개최한다.

행사에서 다케무라 총장은 '<성유식론>의 연기사상'을 주제로 강연한다.

강연에서 다케무라 마키오 총장은 세친(400~480)의 <유식삼십송> 제18게송을 근거로 오직 마음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유식의 입장과 연기설의 관계를 새로운 시각에서 규명할 예정이다.

한편, 다케무라 마키오 교수는 동경대 인도철학불교학 박사로, 일본인도학불교학회상(1984), 일본종교학회상(1986), 나카무라하지메동방학술상(2007), 이노우에엔료상(2008)을 수상한 일본의 대표적인 불교학자다. <유식삼성설의 연구> <유식의 탐구> 등 유식학 논서를 비롯해 <입문 철학으로서의 불교> 등 다수의 불교 관련 저서와 논문이 있다. 조동섭 기자

'보리심' 학술대회 21일 열려

보리심(菩提心)은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으로써 널리 중생을 교화하려는 마음이다.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보리심에 관한 학술대회가 열린다.

중앙승가대 대학원(원장 종석)은 10월 21일 오전 10시 중앙승가대 대강당에서 '불교에 있어서 보리심의 문제'를 주제로 불교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종석 스님의 기조강연 '대승불교와 보리심'을 비롯해 △<보살지지경>에 있어서 보리심(묘주 스님, 동국대) △<무량수경>에 있어서 보리심(강동균 교수, 동아대) △<화엄경>에 있어서 보리심(권탄준 교수, 금강대) △<대일경>에 있어서 보리심(정성준 연구교수, 동국대 BK)이 발표된다. (031)980-7862 조동섭 기자

참나와의 친밀한 만남

몸 마음 영혼의 완전한 치유법!
- 전 통 활 락 법 : 최상의 에너지인 수중화(물 속의 불)로 전신에 경락을 일거에 타통한다.
- 체 절 조 절 법 : 모든 난치병의 뿌리는 뇌에 있다. 체절 조절로 뇌를 다스려 난치병 근치의 신기원을 이룸.
- 전신골격 조정법 : 손가락 하나를 가볍게 접촉하여 참나의 기운을 나눔으로써 5분 이내에 뒤틀어진 골격을 바로 잡는다.
- 전생업장소멸법 : 뇌하수체에 훈습된 아뢰야식의 전생업장을 천연에너지로 강렬하게 태운다.

자동 운기법! 자동 축기법!
수행의 최고 경지는 의념이 배제된 채 저절로 운기와 축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진인의 경지에 바로 진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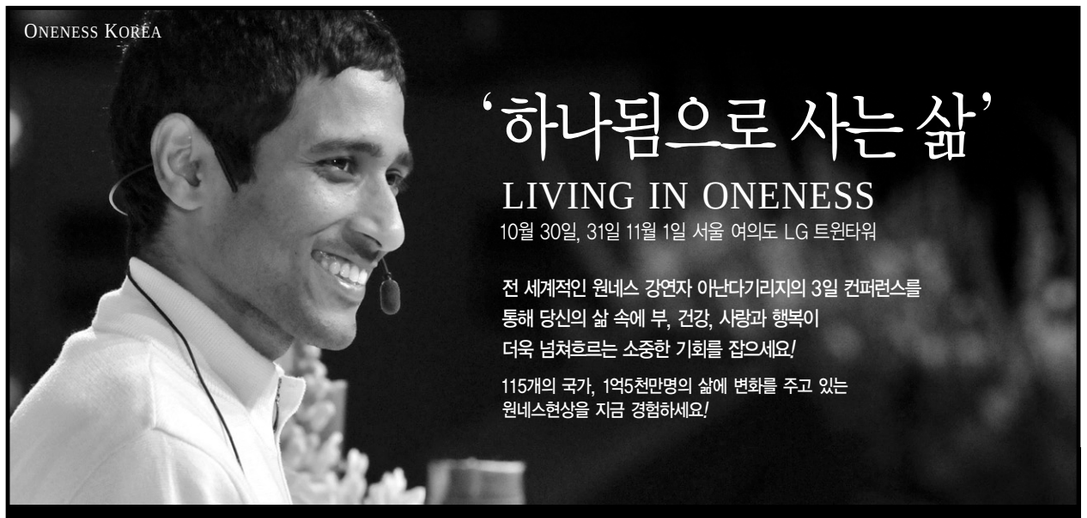
운명의 공식! 개운의 법칙!
우주생성의 근본원리로 자타의 운명을 파악하고, 미래를 정확하게 예단하는 혜안이 열린다. 사업, 취업, 결혼, 부동산매매, 주식거래, 각종 시험 등등 인생 제만사의 각종 문제들을 미리 조정하는 능력자가 된다.

영혼의 과학에 의거한 참된 영가 천도법!
영가의 상태를 직접 파악하고 직접 천도하며 결과까지 직접 확인하는 초유의 비법을 누구나 증득할 수 있다.

최강의 양택 발복법!
9등급으로 양택을 정밀하게 판정하고 기운을 조정하여 최상급의 명당으로 만든다.

완전한 깨달음! 행복한 현실창조! 아름다운 진화!
수 천년 동안 어렵풋한 말로만 전해져서 긴가민가하던 전설이 누구나 실현할 수 있는 최상승법으로 현실화 됐다. (1:1 방식으로 완벽하게 전수하며 회비는 3백만원입니다.)

무료체험신청하세요
좁은 지면에 담지 못한 놀라운 효능!
02)511-5945/ 010-9336-2698



컨퍼런스에서 이루어지는 특별 원네스과정을 통해 이것을 경험하십시오!
- 삶에 대한 법칙 터득하기
- 부모, 배우자, 자식, 동료들의 관계회복 및 치유
- 육체적 건강을 회복하기
- 자신을 포함한 모든것과 하나됨 이루기

- 일 시 : 2009년 10월 30(금), 31일(토), 11월 1일(일)
- 장 소 :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동관 지하 1층 대강당 (5호선 여의나루역 1번 출구)
- 강 연 자 : 아난다기리지 (인도 원네스 유니버시티 강연자)
- 금 액 : 95만원 (입금 선착순 자리배정)
- 홈페이지 : www.onenesskorea.com
- 예약문의 : tel- 070-8244-8020
mail-onenesskorea@gmail.com 카페-http://cafe.naver.com/onenesskr

주 최 : OUR HOME 및 아워홈 협력업체 ONENESS UNIVERSITY